

# 광주, 한겨울 달구는 '에어컨 전쟁'

### 삼성전자·대우위니아·캐리어 등 신제품 생산 마케팅 강화 국내 생산량 70% 차지...백화점·마트도 매출 신장세

광주가 때 이른 에어컨 대전(大戰)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국내 에어컨 제조업체 대부분이 광주에 있는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신제품을 내놓고 여름 시장 선점을 노린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접품) 기능을 강화한 게 특징으로, 멀티 슬라이딩 도어에 공기청정, 자동건조 기능이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스마트 기능과 AI 스피커를 연계,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김혁표 대표가 지난달 설명회에서 직접 "에어컨을 대우위니아 매출의 60~70%를 차지하는 '김치냉장고 탑재'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은 만큼 생산을 총괄하는 광주공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우위니아는 당장, 12월 사전예약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캐시백 프로그램 등을 내놓으며 마케팅을 강화한다.

광주하남산단에 공장을 둔 캐리어도 올 신제품 '더 프리미엄 AI 에어로 18단 에어컨'을 내놓고 시장 공략에 나선다. 캐리어 에어컨은 올해 출시된 7종의 신제품(스탠드형)을 광주공장에서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

캐리어는 바람세기를 18단계로 조절하면서 공기청정 기능이 인공지능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외부에서 컨트롤하는 기능을 갖춘 신제품으로 '여름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대우위니아도 올해 본격적으로 '사계절형 에어컨' 시장 경쟁에 뛰어들면서 내놓은 '2019년형 에어컨(스탠드형)'을 광주공장에서 전량 생산한다. 2019년형 위니아 에어컨 72종(벽걸이형 30개 모델·스탠드형 42개 모델) 가운데 스탠드형은 모두 광주공장에서 생산을 책임진다.

올해 신제품 '둘레바람 i'는 사람에게 찬바람을 직접 닿지 않게 하는 '둘레바람'

업체들의 때 이른 '에어컨 대전'으로 백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2019년형 무풍에어컨으로 시장 공략에 들어갔다. 지난해 무풍 에어컨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모습.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제공>

화점·마트 매출도 증가세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에어컨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가량 늘었고 광주 4개 롯데마트 에어컨 판매량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이 50% 가량 증가했다.

가전업체의 이른 마케팅 강화도 영향을 미쳤다. 업체는 지난달 중순부터 각종 프로모션에 들어가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과 대우위니아 등 중소 가전업체 밸류체인이 갖춰지면서 전국 백색가전 생산 점유율이 70%에 이르는 만큼 에어컨 소비 확대는 지역 주력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삼성 무풍에어컨, 대우위니아 둘레바람 에어컨, 캐리어의 '더 프리미엄 AI 에어로 18단 에어컨' (사진 왼쪽부터)

## 개발 소외지역 임동 일대 문화·예술공간 들어선다

### 광주시 공·폐가 사들여 '문화 Seeding 사업' 추진

개발 소외지역으로 남아있던 광주시 북구 임동 일대에 문화·예술 공간이 만들어진다.

광주시 북구 임동 방직공장 및 기타 챔피언스필드 일대 노후주택을 구입해 작가 레지던스나 오픈 스튜디오 형태로 조성, 관람객들의 발길이 야구장부터 창작공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광주시 구상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 건축가·미디어아트 작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임동 문화 Seeding 사업 추진단'을 꾸리는 한편, 인근 공·폐가 18개 현황과 주변 매물 등을 검토하는 등 낙후된 동네 가꾸기를 위한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광주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2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의회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낙후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광주친일잔재 조사용역보고서'를 통해 임동 일선·전남방직 부지를 근대산업 박물관이나 한국 면직박물관 등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이 나오다가 하면, 광주시의 창작 공간 조성 계획이 제기되면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미 전남방직 건너편 임동 94-8번지 일대 3만6458㎡에 임동 2구역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변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력데이터 활용 신서비스 개발 경진대회

### 다음달 28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주최하고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주관하는 '전력데이터 활용 신(新)서비스 개발 경진대회'가 다음달 28일 서울시 서초동 한전 아트센터에서 개최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일반시민과 학생,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은 한전 홈페이지(http://www.kepco.co.kr)에서 11월부터 24일까지 제안서를 다운받아 작성, 제출하면 된다.

김종갑 사장은 "한전의 전력데이터, 타 공공기관과 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해 보다 가치 있는 대국민 편의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80.73 (+3.68)	↓ 금리(국고채 3년) 1.78 (-0.01)
↑ 코스닥 733.47 (+4.73)	↑ 환율(USD) 1124.70 (+0.80)

## 효성첨단소재, 전주 탄소섬유 공장 증설

### 468억 들여 2020년 완공...연산 4000t으로 늘려

효성첨단소재(주)가 전주에 탄소섬유 생산공장을 증설한다.

효성첨단소재는 11일 전주공장에 468억원을 투자, 탄소섬유 생산공장을 증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설은 미래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받는 수소·압축천연가스(CNG)차, 전선 섬체의 경량화에 핵심소재인 탄소섬유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부지에 라인을 추가해 현재 연산 2000t 수준의 규모를 4000t으로 늘릴 예정이다.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이다.

탄소섬유는 수소차의 핵심부품인 수소연료탱크와 CNG 고압용기 제작에 사용되는데, 회사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연료탱크 수요는 120배, CNG 고압용기 수요는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효성은 지난 2015년부터 시내버스 CNG 고압용기용 탄소섬유를 납품하고 있다. 탄소섬유 CNG 고압용기는 강철 용기에 비해 인장강도가 강해 폭발위험을 최소화해 안전하고 2배 이상 가벼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소차의 경우 경량화가 필수적이라 반드시 탄소섬유 고압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앞서 효성은 지난 2007년 탄소섬유 개발에 뛰어들어 이후 2011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고성능 탄소섬유 브랜드 탄섬(TANSOME)을 내놓는다면, 2013년 5월부터 전주 친환경복합산업단지에 탄소섬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해양도시가스, 원격형 온도압력보정기 확대 설치

### 광주·전남 61개 사업장에 실시간 사용량 고객에 제공

해양도시가스(대표 김형순)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공급권역 61개 사업장에 원격검침 시스템을 위해 원격형 온도압력보정기를 확대 설치했다.

해양도시가스는 대용량 고객의 검침에 대한 불편함과 실시간 검침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7년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나주시 두 곳의 사업장에 시범적으로 원격형 온도압력보정기를 설치, 원격검침을 모니터링 했다. 이를 통해 고객의 호응과 회사의 업무효율이 검증돼 지난해 12월부터 원격검침을 확대 설치, 완료하게 됐다.

이번에 도입한 원격형 온도압력보정기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통신 방식을 이용해 실시간 사용량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다.

또한 검침원이 검침 값을 확인하기 위

해 장거리 이동, 열악한 검침환경 등 검침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해양도시가스는 판매량 및 매출 관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어 검침에 대한 효율성을 높게 됐다.

현재 총63개 사업장 113개의 원격형 온도압력보정기를 설치해 실시간 검침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확대 대용량 고객의 검침에 대한 정확도와 편리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업무용·영업용 도시가스 고객 사업장에도 원격형 온도압력보정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전용 서버와 소프트웨어(software) 프로그램 개발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김형순 해양도시가스 사장은 "검침 및 요금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와 노력을 지속하는 해양도시가스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나방** Naver 공식 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그린알로에

#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